하얀 꽃 아래로 길게 거(꽃뿔)가 밑으로 내려 쳐져 있다.

Cultivation and Using for Potted Plant of *Habenaria radiata*

관상 분화용 자생화 해오라비난초 기르기

송정섭 | 이학박사
T.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 모습.
영낙없이 학이 비상하는 모습이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해오라비난초의 꽃말이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을까? 해오라비난초는 꽃이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야생화도 드물다. 키가 작고 일반 흙이나 강한 광선조건에서 자라기 어려워 화단이나 조경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분화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품목이다. 한국 자생화 중 여름철 분화용의 고급 산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꽃이며, 야생화 사진가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꽃이기도 하다.

모양 및 생태

해오라비난초는 여름에 좀 시원한 습원에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이다. 7~8월 꽃이 필 때 꽃대의 길이는 15~40cm 정도이며 줄기 끝에 한개나 두개씩 핀다. 향기가 약간 나며, 꽃 모양이 해오라비(=해오라기)라고 하는 새를 닮았다고 하나 실제 해오라비는 머리, 등은 검은 색, 깃털은 회색, 배 부분은 흰색으로 많이 다르다. 잎은 가늘고 길게 서로 어긋나며 뿌리는 난초과 식물로는 드물게 알뿌리를 갖는다.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하며 음지에서는 보통정도로 견딘다.

용 도

꽃 모양이 한 마리의 학이 날개를 완전히 핀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탄을 자아낸다. 화분에 3-5개 정도 심어 꽃을 피우면 매우 아름다워 분화용으로 좋다. 자생화를 즐기는 사람들끼리는 꽤 고급 선물용으로 취급한다. 일본에서는 자생지를 잘 보존하면서 한여름 꽃이 부족한 시기에 그것도 자생지에서 대군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재배기술

• 자생지 환경

이전에 수원 칠보산, 강원도 대암산 등 여름에 시원한 습지에서 자생하였으나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른 봄부터 5월까지 햇볕은 충분히 받으며 이후에는 반그늘진 광 조건을 갖는 환경이다.

• 번식

씨앗과 알뿌리로 번식한다. 씨앗은 가을에 종자를 받아 충실한 종자를 골라 수태에 뿌리고 온도를 20~23℃ 정도로 관리하면 싹이 난다. 잘 기르면 1년 이내 꽃이 핀다. 일반 가정에서는 온습도 관리가 쉽

지 않아 보통 알뿌리로 번식한다. 2월경에 알뿌리를 심으면 먼저 잎이 나오고 가느다란 실뿌리가 나오며 잎이 2~3매가 지나면 차년도 개화구로 쓰일 알뿌리도 함께 자라기 시작한다. 어린뿌리들은 일단 나오면 이식을 극도로 싫어한다. 3번째 잎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5월 하순경이면 반그늘 정도의 시원한 곳으로 옮겨 관리한다.

재배관리

정식초기 5월까지의 영양생장 기간동안에는 햇볕을 충분히 받도록 하며 물도 저면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물을 주면 어린 잎 가운데 물이 고여 그 부분이 녹아 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잎이 3매 이상으로 자라면 반그늘로 옮겨 시원하게 해주면 알뿌리가 잘 비대한다. 통풍이 부족하면 웃자라거나 세력이 약해진다. 화분용토는 하얀 수태를 이용하거나 마사토와 부엽을 혼합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추위에 강해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도 잘 견딘다. 알뿌리는 가을 이후에 따로 떼서 습윤저장할 수 있으나 가정에서는 그냥 화분에 있는 채로 그대로 두는게 좋다.

시비 및 병충해 방제

해오라비난초는 비료성분을 좋아하는 편이다. 봄부터 생장기동안 또는 개화 후 가을 휴면기 이전까지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하이포넥스 등 액비를 한달에 2번 정도 뿌려준다. 봄에 새로 나온 잎에 진딧물이 붙기도 하지만 그 밖에 특별한 병해충은 없다. 발생초기에 진딧물 전용약제를 뿌려준다.

잎은 좁고 긴 침형으로 서로 어긋난다. 꽃대가 나오는 중이다.